

보이는 차이나

중국 AI에 투자를 이어가도 될까?

- 중국 경기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나,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이익·기업 실적의 차별화 확대
- AI 수요 확대와 반도체 국산화에 힘입어 과장판 매출·순이익 고성장 및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으로 실적 개선 확산
-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과 변동성 확대에도 실적 가시성·ETF 자금 유입·첨단기업 IPO를 기반으로 과장판에 대한 중장기 관심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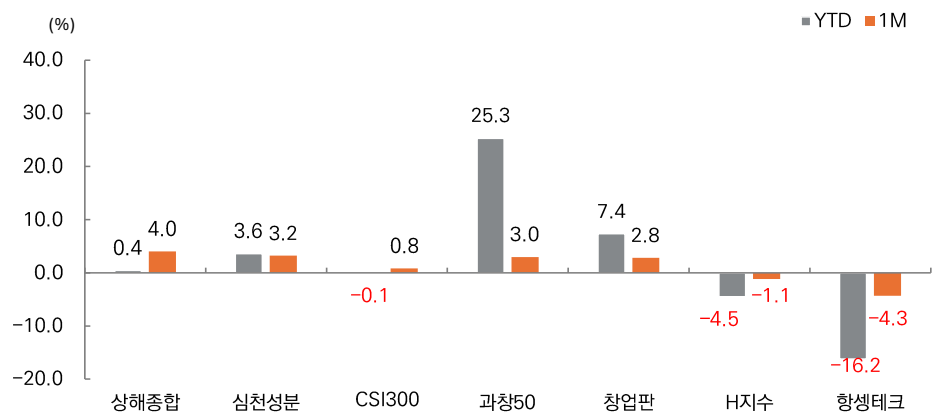
중국 증시도 변동성 확대, 순환매로 하방 지지

최근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도 조정 압력이 커졌다.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AI와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거래대금도 이전보다 축소됐고, 저평가 가치주와 시크리컬 업종으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홍콩 증시 대비 중국 본토 시장은 글로벌 금리와 대외 유동성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기술주에서 이탈한 자금이 저평가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실적 발표를 통해 기업 펀더멘털이 확인된 점도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토 시장 내에서는 과장판의 상대적 강도가 눈에 띈다. 과장50지수 역시 최근 AI·반도체 주의 조정으로 고점 대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연초 이후 25.3% 상승하며 중국 주요 지수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실적 발표를 통해 AI·반도체 기업의 이익 개선이 확인되면서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 약화에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중국/홍콩 주요 증시 등락율 (8/31 기준)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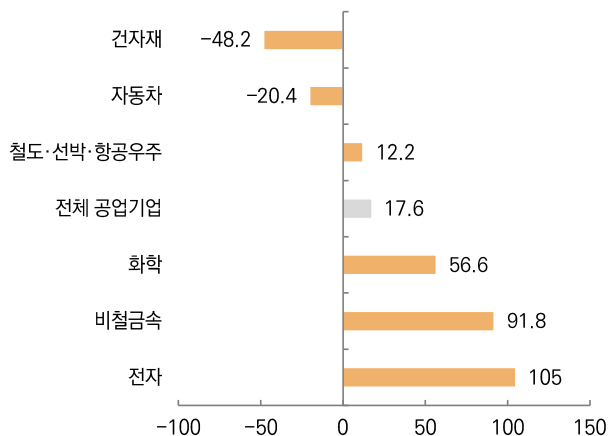
더딘 경기 회복에도 이어지는 AI 산업의 고성장 확인

중국 경기지표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투자와 내수 회복에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8월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개선된 49.8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하회했다. 반면 공업생산과 기업 이익 등 일부 지표는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의 방향은 엇갈리지만 첨단산업의 상대적 강세는 생산과 투자, 이익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과 기업 투자가 AI·반도체·로봇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1~7월 컴퓨터·통신·전자장비 제조업의 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해 전체 공업기업 이익 증가율 17.6%를 크게 상회했다.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중국의 성장동력 전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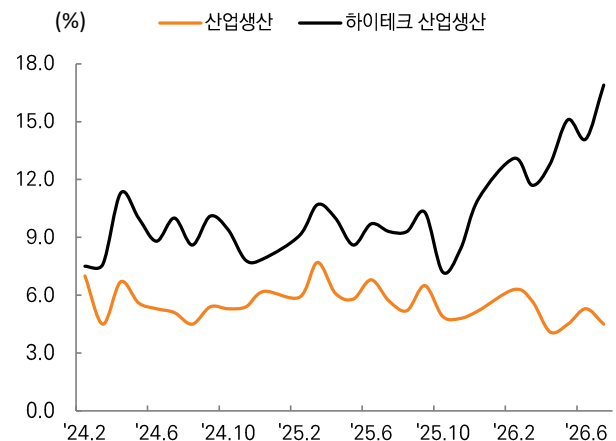
수출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대 초반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삼양(新三样)'이 제조업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함께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등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AI 하드웨어·로봇·혁신신약이 이른바 '신신삼양(新新三样)'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신삼양에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이 성장축으로 더해지는 모습이다.

그림 2. 2026년 1~7월 주요 산업별 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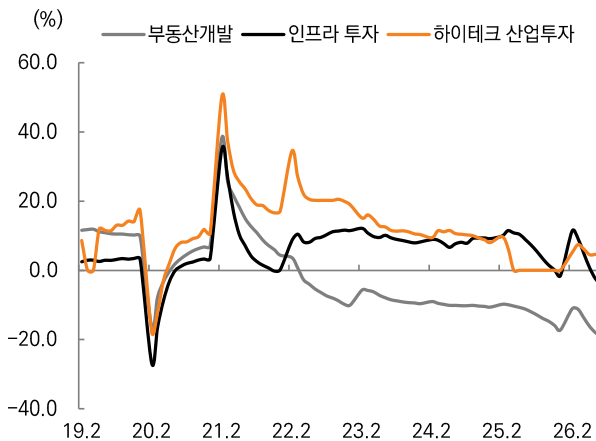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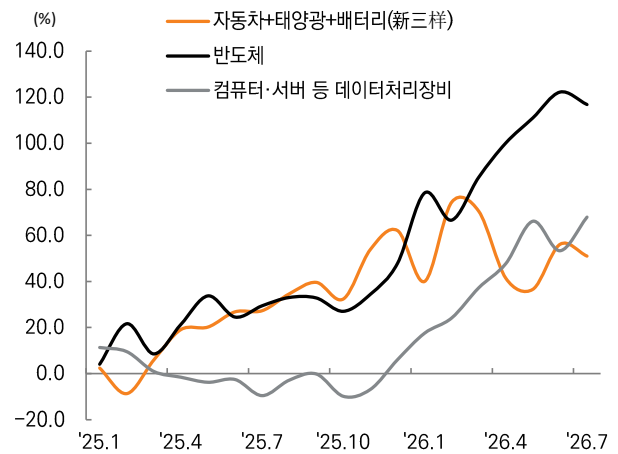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고정자산투자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증명

산업구조의 변화는 첨단기업이 집중된 과창판의 실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6년 상반기 중국 상장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과창판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상하이와 심천증시 전체 상장기업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3%, 10.8%, 순이익은 17.6%, 26.9% 증가했다. 성장기업 비중이 높은 창업판도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22.3%, 32.7% 증가했다. 과창판은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38.6%, 437.6% 증가하며 주요 시장을 크게 상회했으며, 상반기 순이익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AI·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CXMT가 대규모 흑자전환을 기록하고 SMIC와 화홍반도체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하이콘과 캄브리콘 등 주요 AI 연산칩 기업의 매출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상하이증시 집적회로 밸류체인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60% 증가했다.

실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중국 내 AI 수요 확대와 반도체 국산화다. 자체 AI 모델의 성능 개선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연산 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가 지속되면서 AI 칩·메모리·파운드리 등 핵심 영역의 국산화 빨라지고 있다. 늘어난 AI 수요가 자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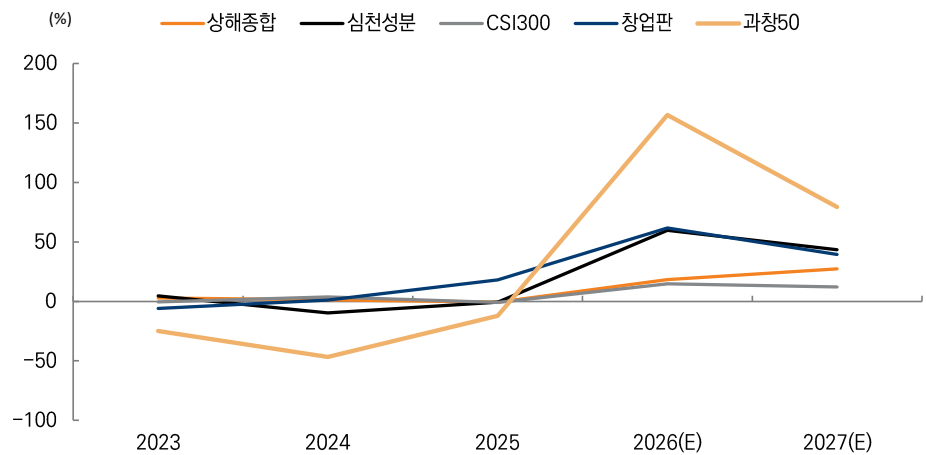
수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AI 칩과 메모리 생산 확대는 파운드리와 반도체 장비·소재, 첨단패키징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투자는 서버·PCB·광통신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AI 수요 확대와 반도체 국산화가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이 반도체에서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 1. 2026년 상반기 중국 주요 시장별 상장기업 실적 증가율

구분	매출액	YoY	순이익	YoY
상하이증시 전체	26.22조 위안	6.30%	2.82조 위안	17.60%
과창판	1.01조 위안	38.60%	1,448.9억 위안	437.60%
심천증시 전체	11.4조 위안	10.82%	7,533.6억 위안	26.88%
창업판	2.55조 위안	22.34%	2,027.5억 위안	32.73%

자료: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중국 주요 지수별 EPS 성장을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시사점: 과창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

중국 AI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향후에는 AI라는 테마만으로 관련 기업이 함께 상승하기보다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과 산업을 선별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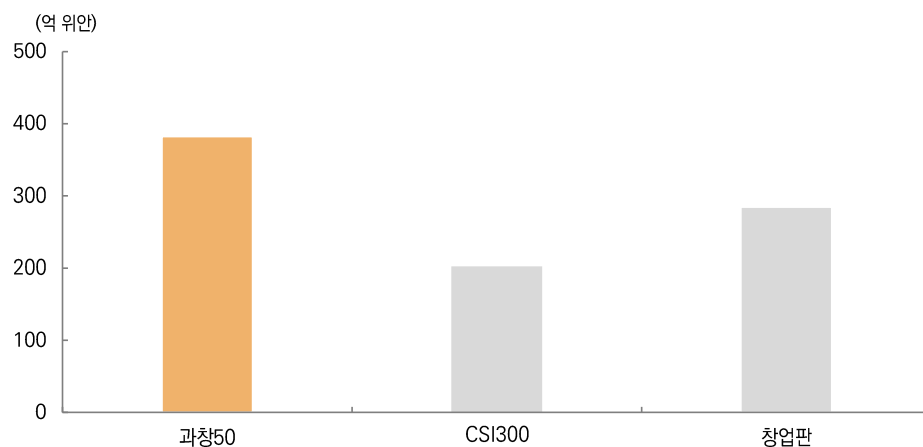
현재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AI와 반도체다. AI 연산 수요 확대와 반도체 국산화를 기반으로 연산칩·메모리·파운드리 실적 개선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소재와 첨단 패키징, 서버·PCB·광통신 등 관련 밸류체인으로도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AI 모델과 Agent, 로봇 등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기업별 수익화 속도는 아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 AI라는 큰 투자 방향을 유지하되 당분간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아직 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창판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 과창판에는 중국 AI 연산칩,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장비·소재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향후에도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의 IPO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산업 대표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AI·반도체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과창50지수도 고점 대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다만 증시의 빠른 순환매에도 과창50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과 별개로 중국 첨단산업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상반기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높아진 변동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의 성장동력이 AI·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변화가 산업지표에 이어 기업 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림 7. 중국 주요 지수 ETF별 순매수 규모 (26.7 이후 2개월 합산)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차이나 반도체/테크 관심 ETF 리스트

테마	ETF명	티커	거래소
지수	Tiger 차이나과창판STAR50	414780 KS	한국
반도체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03191 HK	홍콩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	03119 HK	홍콩
	TIGER 차이나반도체	396520 KS	한국
테크	TIGER 차이나테크TOP10	0047A0 KS	한국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AI 산업 유니버스

구분	티커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기준일 증가 (위안/HKD)	수익률 (%)				Valuation		
					1W	1M	3M	YTD	P/E	P/E	P/B
빅테크	9988.HK	알리바바그룹홀딩스	280.04	110.40	-1.9	-5.6	-14.9	-22.0	26.0	19.6	1.8
	9618.HK	JD	39.04	108.60	-4.1	-14.6	-9.6	0.8	18.0	10.7	1.2
	0700.HK	텐센트	512.56	441.40	0.3	-7.1	-8.3	-25.5	14.8	14.9	3.1
	3690.HK	메이투안	60.38	76.65	-7.3	-17.1	-10.4	-25.8	-10.7	-57.7	2.4
	9888.HK	BAIDU	32.53	93.70	4.5	-11.5	-30.4	-28.7	-53.8	17.4	0.8
	1024.HK	KUAISHOU	19.12	34.64	4.9	-20.7	-28.1	-44.9	8.3	13.6	1.6
LLM	2513.HK	Zhipu AI	70.03	1,179.00	17.1	19.4	-16.5	796.6	-161.8	-103.5	107.9
	0100.HK	MiniMax	15.00	336.80	7.9	46.1	-49.5	-2.4	-8.0	-20.8	11.1
반도체	0981.HK	SMIC	100.19	68.85	3.1	8.9	-16.0	-3.6	72.2	54.1	3.0
	1347.HK	화홍반도체	35.56	120.90	11.1	-5.8	-18.3	62.7	260.8	125.8	3.8
	688825.SH	CXMT	565.63	56.50	-0.2	4.7	15.3	15.3	46.9	25.1	28.5
	002371.SZ	베이팡화창	71.46	667.70	-5.7	-2.8	10.9	45.6	85.2	64.6	12.0
	688012.SH	AMEC	49.51	350.52	-2.0	1.9	23.9	91.7	79.4	90.4	11.2
	600584.SH	JCET	19.34	73.29	-0.7	11.5	-2.6	99.5	67.6	61.0	4.5
	002156.SZ	통푸마이코	13.74	61.38	0.2	8.2	-3.9	63.0	36.9	56.7	5.5
	603501.SH	웨이얼반도체	15.22	82.85	0.4	-6.6	-10.5	-34.1	32.2	25.8	3.2
	603986.SH	GigaDevice	40.89	393.00	3.0	3.8	-17.2	83.7	34.9	28.1	7.4
	688041.SH	Hygon	85.84	250.43	8.5	-9.6	-11.6	11.7	185.3	130.6	22.9
	688256.SH	Cambricon	102.85	1,109.00	14.4	0.3	-14.7	22.0	209.3	124.1	51.4
	688795.SH	Moore Threads	36.89	532.20	0.9	-6.7	-13.7	-9.5	-337.4	-1319.9	20.5
	688802.SH	Meta X	39.69	672.73	1.3	-2.3	1.4	16.0	30254.4	45763.9	19.4
	6082.HK	Biren Tech	15.18	45.92	32.2	47.3	-25.5	33.3	-6.8	-98.2	10.3
H/W	601138.SH	FOXCONN	184.19	62.94	4.2	12.3	-20.4	3.2	26.6	20.1	7.1
	603019.SH	중과서광	18.70	86.67	5.5	3.8	0.8	1.7	52.4	42.4	5.5
	000977.SZ	남조정보	18.54	85.60	16.9	19.2	31.7	28.6	27.5	29.4	5.1
	000725.SZ	BOE	32.12	5.91	2.8	7.3	9.0	41.6	27.9	26.0	1.6
	002475.SZ	임신정밀	64.84	56.92	6.0	-1.0	-22.9	0.9	24.7	20.5	4.7
	0992.HK	레노버	48.39	30.58	3.2	29.9	16.6	234.7	60.6	18.5	6.7
	2382.HK	순우광학테크	10.04	71.90	19.4	28.3	-12.1	11.3	14.2	16.9	2.4
	0285.HK	비야디전자	7.71	26.82	15.7	14.2	-9.7	-19.7	23.7	17.0	1.5
S/W	002230.SZ	신비정보	14.25	40.22	3.3	-4.7	-16.5	-19.8	110.5	82.0	4.2
	688111.SH	Kingsoft Office	16.93	247.36	6.0	-8.2	-5.1	-19.0	31.8	40.6	7.6
	600588.SH	웅우네트웍	5.24	10.39	2.6	-6.2	-7.9	-21.6	-25.9	-194.2	5.3
	0020.HK	SENSETIME	7.67	1.43	-3.1	-1.7	-21.3	-35.2	163.6	-83.3	1.7
	1357.HK	MEITU	2.84	4.86	14.1	3.0	-12.1	-29.8	24.0	16.2	3.3
	3888.HK	Kingsoft	4.40	25.08	5.9	-6.3	6.5	-11.3	10.6	18.6	1.1
	0268.HK	금접소프트웨어	3.96	8.84	8.4	6.1	-1.7	-33.5	110.1	65.0	3.4
통신 (서비스)	600941.SH	차이나모바일	224.08	99.89	2.4	2.5	1.7	1.1	16.4	16.4	1.5
	601728.SH	차이나텔레콤	82.78	6.47	0.0	2.7	6.6	4.2	19.9	19.7	1.3
	600050.SH	차이나유니콤	19.92	4.32	1.6	-3.1	-1.1	-14.4	19.5	17.3	0.8
통신 (CPO/PCB)	000063.SZ	ZTE	22.68	34.28	3.5	1.4	-4.4	-8.3	49.5	27.0	2.1
	300308.SZ	중지쉬창	149.60	859.30	-1.3	-4.7	-27.9	41.0	49.5	32.0	25.4
	002916.SZ	썬난서킷	35.59	354.34	3.1	15.0	-11.1	53.5	57.9	42.9	13.4
	002281.SZ	광신과기	22.06	180.72	8.6	11.8	-16.0	158.4	129.4	90.0	10.4
냉각	002837.SZ	임웨이커	12.41	65.90	20.4	38.9	-2.4	-19.7	171.4	74.2	23.5
휴먼노이드	9880.HK	유비테크	5.23	81.50	2.3	-0.1	-28.7	-35.5	-59.3	-113.5	5.1
	2498.HK	ROBOSENSE	1.11	18.00	0.6	-24.4	-44.3	-50.8	-48.5	419.7	2.1
	601689.SH	탁보그룹	11.91	46.48	0.4	-0.4	-26.2	-39.4	32.2	25.2	3.3
	002050.SZ	삼화	21.32	35.96	0.7	-4.2	-19.9	-34.4	37.9	32.4	4.7
	300124.SZ	후이첸테크	24.34	60.95	4.5	-4.9	-19.8	-18.6	33.7	27.8	4.5
	601100.SH	항람유항	20.15	101.88	-3.1	-6.1	-8.0	-6.8	49.8	39.7	7.6
자율주행	9660.HK	Horizon	9.35	4.60	-3.2	-11.1	-16.8	-46.9	-43.9	-23.0	3.9
	6880.HK	MOMENTA	6.91	230.00	-4.6	-12.5	-22.2	-22.2	-13.6	-5.4	-1.4
	2533.HK	Black Sesame	1.03	11.23	8.2	-4.9	-27.6	-41.8	-4.9	-6.3	4.8

* 추천종목 아님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6.9.1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국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